

SPORTS 전국 태권도 꿈나무, 광주서 열전 펼친다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제27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 전국대회 내일 개막
20일까지 광주빛고을체육관서...지역 112명 메달 조준

전국 태권도 꿈나무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해 광주에서 열전을 펼친다.
‘제27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 시장기 전국 남·여 중·고교 태권도대회’가 1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8일 동안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다.
대한태권도협회, 광주시, 5·18대회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주시태권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남고부 737명, 남중부 840명, 여고부 334명, 여중부 401명 등 총 2312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광주지역에서는 남고부 28명, 남중부 48명, 여고부 11명, 여중부 25명 등 112명이 참가한다.
대회는 편집급과 플라이급, 페더급 등 11체급(고등부 10체급·중등부 11체급)으로 나뉘 체급별 노년트로 치러지며, 전 중별 전자동 전자호구(KP&P) 및 전자머리보호대를 사용한다.
경기시간은 1분30초씩 3회전으로 열리며, 중간 휴식시간으로 30초가 주어진다. 3전 다승제 방식이 적용된다.
개인 체급별 1·2·3위에게 메달과 상장이 수여되며, 각 부별 최다득점자(최우수선수)에게 상품권

50만원과 상장 및 트로피가 주어진다. 부별 종합우승팀 지도자에게도 상품권 50만원과 상장, 트로피를 수여할 예정이다. 부별 단체우승팀 및 2·3위 팀, 그리고 감투상과 장려상 등 단체시상도 이뤄진다.
전국의 태권 꿈나무들이 광주에 모여 ‘민주’, ‘인권’, ‘평화’의 5·18 광주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대회인 만큼 태권도 꿈나무 발굴은 물론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와 함께 지역 이미지 개선에도 지대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실제 이번 대회에는 2300여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하면서 내수 진작 등 광주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35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과 정보제공을 통해 ‘오월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나감은 물론, 광주와 호남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개최식 식후행사로 조선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 100여명이 참가해 ‘5월의 정신, 4월의 외침’이라는 주제로 ‘희망 광주’ 공연을 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공연은 태권도 퍼포먼스 서사 공연으로 1980년



지난해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제26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 시장기 전국 남·여 중·고교 태권도대회’ 경기와 시상식 모습.



5월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의 기억을 되새기는 한편, 2025년 4월 계엄령 및 탄핵을 연결 짓는 등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강렬한 민족정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번 공연을 통해 광주시민들이 민주화를 위해 싸운 그날의 열망과 희생을 태권도의 역동적인 동작으로 표현해 당시 시민들의 용기와 외침을 생생히 시킨다. 이어 2025년 4월의 계엄령 및 탄핵사태에서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5월 정신을 되새김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지켜낸 대한국민의 희망과 연대의 소중함을 부각시키게 된다.
이번 대회 광주지역 출전선수 가운데 유력한 우

승 후보는 제25회, 제26회 5·18대회 1위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L-미들급 각각 1위를 차지한 신예진(3년·상무중)과 2024년 제51회 중جو연맹회장기대회 1위, 제54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 대회 1위, 제35회 문화체육부장관기 대회에서 플라이급 각각 1위에 오른 나정운(3년·체육중)이 눈여겨볼 기대주다.
운용철 광주시태권도협회장은 “이번 대회는 1980년 5월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 평화를 위해 군사 독재의 총칼에 맨몸으로 맞섰던 민주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한 뜻깊은 대회가자 올해로 27회째 ‘광주정신’과 태권도를 결합해 계

최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라며 “8일 동안 열리는 태권도대회를 통해 광주정신이 길이길이 후손들에게 이어져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마음속 깊이 각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겨루기뿐만 아니라 품새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으며 K-태권도의 새로운 중흥을 선도하고 있다”며 “‘태권 성지’인 광주에서 아직 품새대회를 열지 못해 아쉽다. 빛고를 태권인들이 힘을 모아 광주에서도 품새 종목 전국대회가 반드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또 날벼락’ KIA 황동하, 교통사고로 허리 부상 요추 횡돌기 골절...“6주 동안 보조기 착용·안정 필요”

KIA타이거즈가 또다시 부상악재를 맞았다. 투수 황동하(사진)가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6주 이상 자리를 비우게 됐다.
KIA는 지난 9일 “황동하가 8일 오후 인천 연수구 원정 숙소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부딪혀 허리를 다쳤다”며 “병원으로 이송돼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했고, 요추 2번과 3번 횡돌기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6주 동안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고,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키움과의 주중 경기를 마쳤던 KIA는 9~11일 SSG랜더스와 원정경기가 예정돼 있어 인천으로 이동했다. 8일은 경기가 없는 휴식일이었지



만, 황동하가 이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장기결장이 불가피해졌다.
을 시즌 불펜으로 시작했던 황동하는 윤영철 부진 이후 지난달 말부터 선발로 활약했다. 최근 등판이었던 7일 키움전에서는 5이닝 1실점으로 패투했다. 을 시즌 황동하의 성적은 13경기 1승 2패 평균자책점 5.52다.
최근 마운드 컨디션 난조를 겪고 있는 KIA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제4회 전국무등산무돌길완주대회’가 지난 10일 무등산무돌길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제4회 전국무등산무돌길완주대회’ 성료 (사)무등산무돌길협회의 주최 2000여명 참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하는 ‘제4회 전국무등산무돌길완주대회’가 지난 10일 무등산무돌길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무등산무돌길협회의와 전남대학교총동창회가 주최하고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 동구·북구, 담양군·화순군 등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광주·화순·담양 등 무등산 자락 51.8km 구간에서 진행됐다.
완주(51.8km)와 하프, 시민 경기(5.18km) 등 다양한 코스로 나뉘 열린 이번 대회에는 1800여명의 참가자와 3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했다.
전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무등산 자락에 펼쳐진 무돌길의 비경과 문화를 만끽하며 저마다 목표한 구간을 완주했다. 특히 참가자 중 142명이 51.8km 구간을 8시간 안에 주파하고 400여명이 완주하는

기업을 토했다. 4년 연속 참가자 30명에게는 최다 참가상이 주어졌으며 최연소(13세), 최고령(79세), 외국인 참가자상 등이 수여됐다.
김인주 무등산무돌길협회의 상임의장은 “성공적인 대회 성과를 토대로 무돌길이 무등산의 전통 문화는 물론 지구촌 민주화운동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명품 길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돌길은 ‘무등산 자락의 천년 문화를 한 바퀴 돌아보는 아름다운 길’이라는 의미로 48개 마을과 마을을 잇는 500년 이상 된 옛길을 1910년 작성된 지도를 토대로 발굴·복원한 무등산 둘레길이다. 광주역을 출발해 전남대, 각화저수지, 담양·화순, 광주천·푸른길을 지나 광주역으로 순환하는 16개 길로 구성돼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AI페퍼스, 외인 드래프트 2순위 조 웨더링튼 지명

미국 출신 아포짓 스파이커
푸에르토리코 등 경험 풍부
“팀에 기여하는 선수 될 것”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여자프로배구단이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아포짓 스파이커 조 웨더링튼(미국·23)을 뽑았다.
AI페퍼스는 지난 9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2025 한국배구연맹(KOVO) 여자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로 조 웨더링튼을 영입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2024~2025시즌 순위의 역순에 따라 7위 AI페퍼스가 35개, 6위 GS칼텍스 30개, 5위 한국도로공사 25개, 4위 IBK기업은행 20개, 3위 현대건설 15개, 2위 정관장 10개, 1위 흥국생명에게 5개의 구슬이 배정됐다.
그 결과 IBK기업은행이 가장 먼저 선택권을 갖게 됐지만, 기존 외인 빅토리아와 재계약할 했다.
2순위에 뽑혔던 AI페퍼스는 이로써 사실상 1순위 지명권을 갖게 됐고, 웨더링튼을 선택했다. 웨더링튼은 184cm의 아포짓스파이커다. 미국, 푸에르토리코, 그리스 등에서 활약했다. 폭발적인 공격력이 장점인 그는 2001년생의 어린 나이에 V리그 무대를 밟게 됐다.
그는 AI페퍼스에 지명된 후 “영광이다. 제는

이 많은 선수 사이에서 내가 뽑혀서 기분이 좋다. 자신감이 있었지만 상위픽으로 불릴 것이라고 생각은 못 했다”면서 “침착하게 노력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V리그 기대감을 묻는 말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K리그를 훈련할 때 많이 들으며 경험하겠다”면서 “한국 배구가 훈련이 많고 강도가 세다는 것을 아는데 거기서 내가 얼마만큼 잘 해낼 수 있을지 기대한다. 한국 음식은 미국에서 못 배운다”며 “스페인어, 그리스어 등 언어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말도 배우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수비적으로 뛰어난 리그라 잘 때리고 마무리해야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V리그는 내게도 큰 테스트가 될 것”이라면서 “V리그(기업은행)에서 된 어도라 아니는 내 코치였었다. 여성이면서 강한 지도자였다”며 여성 사령탑인 장소연 감독과의 호흡을 기대했다.
끝으로 웨더링튼은 “엄마는 여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한국에 당연히 오실 것이고, 오프시즌에 내가 휴가를 떠나더라도 한국에 남아서 게실 수도 있다”며 한국행에 만족감 또한 밝혔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대한장애인사격연맹, 장애인체육회 평가 ‘1위’ 조직·사업·행정 전 부문 우수...“종목 저변 확대에 최선을”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이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2024년 가맹단체 종합평가에서 총점 98.84점을 기록, 34개 가맹단체 중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조직관리, 사업관리, 행정관리 등 3개 영역을 중심으로 각 단체의 운영 전반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연맹은 모든 항목에서 고른 성과를 보이며 탁월한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특히 조직관리 부문에서는 전략·의사결정의 합리성, 조직 운영의 민주성과 공정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사업관리 부문에서는 경기력 지수, 국가대표팀 운영, 국제교류 활성화, 종목보급 등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행정관리 부문 역시 홍보 활동, 민원 대응, 직원 관리 등의 항목에서 체계적이고 성실한 운영이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이는 장애인 선수 출신의 사무국장과 국가대표 지도자 기용 등 당사자 중심의 인



선과 현장 중심의 행정 전략 실행이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된다.
문상필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사진)은 “이번 성과는 사격 가족 모두의 헌신과 연맹 임원 및 사무국 등 모든 분들이 적극적인 참여하고 노력해 준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사격의 저변 확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는 2025년 창원장애인사격 월드컵과 2026년 장애인사격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데도 긍정적인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한민국 장애인 사격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뮌헨’ 김민재, 분데스리가 우승 빅리그 두 곳서 우승한 첫 한국 선수

‘철기둥’ 김민재(뮌헨)가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지난 5일(이하 한국시간) 2024~2025 분데스리가 우승을 확정지은 김민재의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은 11일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뮌헨글라트바흐와 33라운드를 치른 뒤 우승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2023~2024시즌을 앞두고 뮌헨 유니폼을 입은 김민재는 올 시즌 뮌헨에서 처음으로 리그 우승을 경험했다.
김민재는 27경기에 출전해 뮌헨의 철벽 수비에 기여하고, 득점 또한 두 차례나 올렸다.
2022~2023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나폴리의 33년 만의 우승에 기여한 그는 빅리그 두 곳에서 우승한 첫 한국 선수가 됐다.
뮌헨으로서는 2년 만의 왕좌 복귀다. 지난 시즌엔 레버쿠젠에 우승을 내주며 3위에 그치는 굴욕을 맛봤다.
연합뉴스